

#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현재와 전망

## 종래의 '삽화' 수준 비하면 괄목할 발전...전문작가들 출현으로 세대교체 이뤄

아직도 대개의 사람들은 “일러스트레이션” 하면 동화책에 그려진 그림들을 떠올리고, “동화책에 그려진 그림”하면 “삽화”라는 용어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 이러한 생각을 보편적인 정서라고 주장하기에는 반대의견 또한 없지 않았지만 미술의 확고한 한 장르인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한국적 현황은 그 다양하고 방대한 표현영역 가운데서 ‘아동물’에 특히 집중돼 있음을, 아동물에 집중된 일러스트레이션은 고유한 제 위상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채 글의 이해를 돕고 보충하는, 말 그대로의 ‘삽화’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그런데, “동화일러스트레이션=삽화”라는 등식은 최근 나온 아동도서들을 눈여겨보거나 출판일러스트레이션계의 근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한 낡은 생각임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일반의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단정지를 만큼 파격적인 변모는 아닌 어느 정도라는 ‘일부’ 수정이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와 모색의 움직임이 동화일러스트계에 활발히 일고 있다.

### 출판미술가협회 조직되며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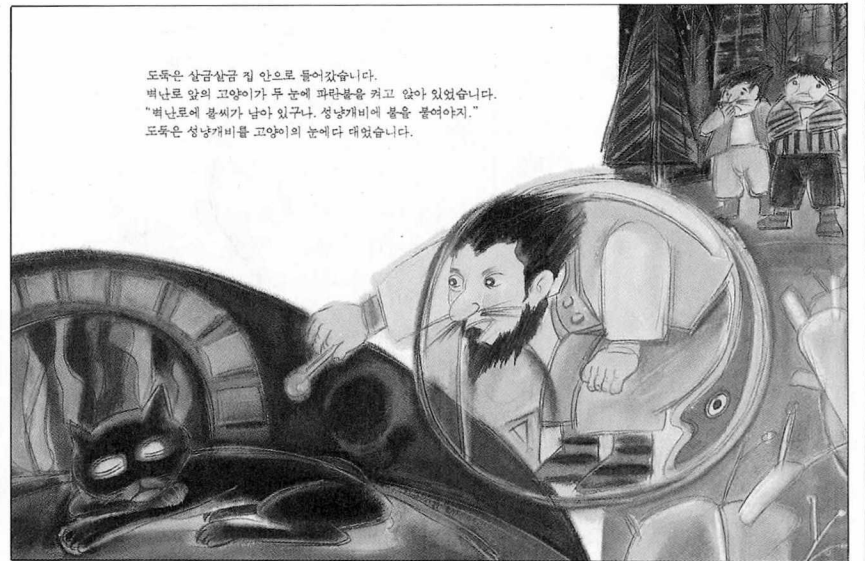
먼저,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로 그림책과 동화책과 같은 아동물에 국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3세 이상의 유아용으로 개발되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웅진출판사의 「울챙이 시리즈」(전60권)를 비롯하여 예림당의 「베이비 퍼스트북」(2~5세용, 전3권), 프뢰벨의 「한국전래동화」(3~6세용, 전15권) 「비안키 동물기」(3~6세용, 전15권), 삼성출판사의 「아인슈타인」(3~6세용, 전28권), 동아출판사의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시리즈」(9~13세용), 민음사의 「외국장편동화」(10~13세용) 등 전래동화나 과학동화를 비롯해 외국원화를 복사하거나 사다 쓰기 일췌이던 세계명작동화에 이르기까지 단행본이나 전집 등이 국내작가들의 그림으로 대체된 것. 이는 우리나라 동화책에 본격적인 의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지난 80년 동화출판공사의 「그림동화 100 시리즈」가 그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표현해낼 전문일러스트레이터가 없어 기성 화가들에게 의뢰했던 것에 비해보자면 10여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전문 그림책 화가들의 대거출현은 일

러스트레이터계의 양적 성장이 상당함을 증명한다.

이같은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향상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질적향상의 외양적인 잣대는 세계 유수의 그림동화 콩쿠르에서 국내입상자가 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87년 노마콩쿠르 대상(강우현)을 비롯해 류재수(87년) 최정훈(89년) 이창우(90년), 안기영(91년) 씨 등이 수상했고 올해도 박성완과 나애경 씨가 각각 대상과 가작을 받았다. 이밖에도 체코의 국제 그림책원 화비엔날레,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지명작가, 日 講談社 출판문화상 등 국제적 명성의 각종 대회에서 국내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수적 증대가 단순한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성장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러스트레이션계에서는 이같은 출판미술의 양적·질적 변화의 기폭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던 지난 88년으로 본다. 전년도(87년)에 있었던 UCC가입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인식이 낮아 피해가 이어지고, 올림픽 이후 국제적 규모의 출판물이나 작가의 교류가 예견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한 현실 앞에서 제각기 홀어져 활동하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힘을 결집시킬 연대기구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88년 10월 발족한 출판미술가협회(초대회장 김영주)는 설립취지문에서 “그동안 일러스트레이션의 질적수준이 저급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되어 왔던 불명예를 치유하고... 출판미술의 성숙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자구책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은 물론 저작권 문제의 전향적 검토, 원고료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일러스트레이터의 복리후생 및 작품활동 지원을 위한 공식창구의 필요성”을 말함으로써 이 취지문만으로도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션의 위상이 어느 수준이며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입지가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발족 당시 100여명 남짓하던 회원수가 ‘한국출판미술신인대상전’과 같은 신진작가 등용문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에는 신진·기성을 합쳐 250명 가량 되는데, 지금 국내에는 이 조직의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까지 포함하여 “돈을 받고 일러스트를 파는” 출판일러스트레이터들은 약 500여명에 달한다. 출판일러스트레이터라 하면 그림동화 부문을 비롯해 시시간행물, 광고, 팬시 부문까지 망



도둑은 살금살금 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 앞의 고양이와 두 눈에 파란물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씨가 남아 있구나.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야지." 도둑은 성냥개비를 고양이의 눈에 대었습니다.



「브레멘 음악대」(김석진, 제3회 출판협회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출품작)

「야호! (II)」(현주연, '93 출판미술가협회 미술대전 참가작)

리하는데, 대체로 정도의 차이를 두고 겸업을 하고 있어 그 수를 그림동화일러스트레이터의 수라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전래동화나 위인전과 같은 역사물을 주로 그려왔던 개척기 시대의 김영주, 이우경, 홍성찬, 이순재, 전성보 씨를 비롯하여 어느 정도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을 그림책에 정착시킨 2세대의 김광배, 이우범, 김천정, 김박, 최충훈, 하원인, 강인춘, 양후영, 이성박 씨, 그리고 각종의 세계대회에 참가하면서 그림동화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이름을 확고히 한 3세대 강우현, 류재수, 노희성, 이영원, 최준식 씨, 마지막으로 독창적인 조형방법과 다양한 표현매체를 이용하여 개성적인 그림동화의 세계를 보여준 이성표, 조선경, 이인수, 박영권, 권혁수, 이해리, 이진아, 노정덕, 박성완

씨 등을 비롯하여 나애경과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신진그룹 등이 현재에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

### 아직 '동심천사주의'에 머물러 있기도

“그림책은 깊게 느끼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사고하는 장소와 기회를 어린이의 생활로부터 창출해 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코 지식을 집어넣거나, 문자를 가르치거나,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재가 아니다”(마쓰이 다다시, 일 후쿠인칸 서점회장, 아동도서전문가)는 그림책에 대한 유명한 정의에 기대어서 보자면, 이처럼 양적·질적으로 적잖게 팽창을 이룬 국내 아동일러스트레이터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림책의 수는 그리

# 독특한 해석과 개성적 조형방법

## 제8회 노마콩쿠르 대상받은 박성완씨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가 주최하고 일본 국제아동도서평의회와 講談社 등이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동화일러스트레이션 잔치인 ‘노마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박성완(34, 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 전임강사)씨가 54개국, 469종의 참가작 가운데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아시아 및 제3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최고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노마콩쿠르는 체코의 BIB, 볼로냐아동도서상과 더불어 국제적인 명성의 동화일러스트레이션 콩쿠르인데, 지난 79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8회째 맞고 있다.

“이름있는 대회니 만큼 기회가 닿으면 한번쯤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가져 왔습니다만, 저의 전공이 딱히 아동물 일러스트도 아니고 이 작품도 대회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 아닌데 뜻밖의 큰 상을 받게 되어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박씨가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어린이나 어른 할것없이 어린이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보았을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텍스트로 그린 6편의 그림이다. 오리알 가운데 섞여 영똥하게 태어난 아기 백조가 다른 오리들과 틀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의기소침하게 자라다 어느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알게 되어 그동안의 의심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줄거리의 이 동화를 박씨는 독특한 해석력과 개성적인 조형방법으로 아기백조의 성장기를 앙증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디자

인적이다 싶을 만큼 정리된 형태와, 들뜨는 기운없이 억제된 색조의 미묘한 채색이 다른 그림들과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고 평가했다.

박씨의 ‘미운 오리 새끼’ 연작 일러스트레이션은 지난해 9월 아동도서출판사인 프리벨의 의뢰로 15편으로 제작됐던 것. 그 가운데 6편을 가려뽑아 노마콩쿠르에 출품했는데, 이 대회 수상작인 경우 후원사 중 하나인 강담사에서 동화책을 제작하는 특전을 얻게 되는데, 따라서 프리벨측은 이 동화책을 제작해놓고도 주최국의 우선 출간에 따라 아직 서점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마콩쿠르가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러스트레이션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과 북미권이 빠진 일부지역에 한정된 대회니만큼, 여기서 대상을 받았대서 대단한 수준의 작품성을 가진 작가로 과대평가될까봐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좀 잘한다” 정도로 보아줬으면 좋겠다고 겸손해 하는 그는 자신이 아동물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상을 받았대서 아동그림작가로만 인식되는 것은 “싫다”고 덧붙인다. 아직은 광고나 만화 등 일러스트의 방대한 영역을 빠짐없이 시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동물쪽에서 의뢰가 오면 다른 쪽에서의 의뢰와 마찬가지로 짚이 나는 대로 흔쾌히 수락은 하지만 자신이 더 애착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분야는 ‘퍼블리싱 일러스트레이션’과 상대되는 개념의 ‘갤러리 일러스트레이션’이라 불리는, 다시말해 순수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는 ‘독립된 표현형식’으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번 ‘노마콩쿠르’에는 대상을 받은 박씨 외에도 가작에 나애경씨가 있고, 역대 노마콩쿠르 수상자로는 강우현(87년 대상) 류계수, 최정훈 씨 등이 있다.

— 정혜옥 기자

많지 않다는게 중론인 듯 싶다.

이와함께, 그림이 주를 이루는 그림책과는 달리 글과 서로 보충적인 동화책의 경우, 아직까지도 답습되어 오는 제문제들로 인해 아동도서의 정체성을 못 벗어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야기 내용에 아직도 어린이를 단지 착하고 순하게만 보는 ‘동심천사주의’ 관점이 잔존하고, 어린이를 고유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보다 ‘어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여 교육적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강요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같은 어린이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인식은 현실성이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에 머물게 하거나,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사필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여 어린이독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쉽게 싫증을 느끼게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곧 그림의 주제이기도 해 이러한 내용하에서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따라서 아직도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예쁘고 고운 형태, 화사하고 알록달록한 색채의 상투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마치 어린이 그림의 기본원칙인양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류계수씨는 이같이 ‘리얼리티의 결여성’을 어린이도서의 근본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리얼리티의 결여는 역사적 인식의 불철저성, 사회적 인식의 무의식성, 어린이관의 오류 등 세가지 점에서 오는데, 동화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왜 쓰고” “왜 그리는가”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관의 부재’라 말할 수 있는 이같은 현실은 작가들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림책이 드문 현실을 낳는다. 다시말해, 이것이 그림동화가 갖는 최대의 강점인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즉, 그림이라는 만국공통어의 질적수준을 국제수준에 밀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동문학자 김수남(소년한국일보사장)씨는 바람직한 어린이책의 전제조건을 ‘성실한’ 아동문학자가 쓴 우수한 문장에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경력이 있는 아동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둘러보면 아동 일러스트레이터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커리큘럼이 전무한 형편인데, 이런 여건에서 우수한 일러스트레이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아동물일러스트레이터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더욱 명약관화해진다. 대학에

일러스트레이션 학과가 없어(인덕전문대학에 한곳 설치돼 있다) 인공과인 응용미술학과나 그래픽디자인학과에 다니며 그저 섭렵의 정도에서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이해부터 그림그리는 기술까지 갖춘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의 성장은 더더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활약 하고 있는 우수한 동화일러스트레이터들이 외국의 좋은 작품을 모방하며 배우고 아동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독창적인 세계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은 절실한 문제이다.

한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아쉽게 느끼는 점은 그림동화출판은 일종의 화집출판과 같이 일정량 이상의 자금투입이 필수조건인데 출판사측의 제작비의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 특히 아동물의 경우 전집물이 많은데, 모든 작가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전집물의 양산은 자칫 역량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키우지 못하고 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다행히 일부 출판사를 중심으로 자사 일러스트레이터를 외국으로 연수를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고료 이외의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은 재교육이 필수적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또한, 국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을 받아 책을 만드는 것보다 외국의 원화를 사들여 오는 것이 “오려려 저럼”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국내작가들의 그림으로 책을 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눈앞의 작은 영리를 마다하고 국내작가를 양성하겠다는 배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전문교육기관 마련되어야

최근 어린이도서연구회(회장 조윤희)나 ‘초방’과 같은 어린이책전문서점에서 어린이,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그림책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그림책원화전 유치 및 전국규모의 일러스트공모전, 외국유명일러스트레이터 원화전 등의 크고작은 규모의 행사들이 많은데, 이는 국내일러스트레이터들에 적지않은 긴장과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그림책의 양산은 일러스트레이터 당사자들만의 노력에 기대기에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

— 정혜옥 기자